

조선초기 진법의 원리와 문화원형의 시각적 복원

세종시대 『계축진설』을 중심으로

권병웅* · 노영구**

| | |
|---|-------------------------|
| I. 서론 | IV. 조선초기 진법의 문화원형과 활용방향 |
| II. 『계축진설』 편찬의 군사적 배경 | V. 결론 |
| III. 『계축진설』에 나타난 전투 방식과 조운진(鳥雲陣)의 시각적 복원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조선이 건국된 14세기 후반은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1350년경 몽골의 원나라는 중원에서의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면서 결국 한족의 명나라에 의해 1371년에는 수도인 대도가 함락되었다. 중원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요동 지역은 나하추 세력이 독립하여 명나라와 대립하고 고려와도 군사적인 갈등을 빚었다. 1387년 이른바 철령위 설치를 두고 명나라와 고려가 대립하면서 고려의 요동 정벌 시도와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는 등 매우 고려의 정세도 매우 급변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급변하던 국제 정세는 여러 차례의 군사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다양한 세력 집단의 이합집산을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 주변 세력과의 많은 접촉과 갈등, 그리고 여러 집단의 고려 편입 등이 나타났다. 이성계로 대표되는 북방 세력의 고려 편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의 군사적 능력과 전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서 고려의 군사적 면모도 이전보다 한층 일신되었다. 고려말-조선초 다양한 진법서의 편찬과 보급은 이 시기 군사적 변화의 양상이 매우 컸음을 반영한다.

진법이란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를 조직적으로 배열한 전투 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법에는 단순한 전투 대형을 넘어서 무기체계, 병종 등 당시의 전쟁 양상을 알 수 있는 매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조선초기의 여러 진법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전투 양상과 함께 군사적인 측면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 주저자,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 교신저자,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miyo97@hanmail.net

조선초기의 진법서로는 태조대 정도전이 편찬한 『陣法』(진법)과 세종대 편찬된 『陣圖法』(진도법), 『癸丑陣說』(계축진설) 그리고 문종초의 『五衛陣法』(오위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초기의 진법서에 대해서는 1980년대 후반 하차대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 이후 최근 여러 연구들이 제출되었다.¹⁾ 이에 따라 15세기 진법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그 진법의 구체적인 형태와 운용에 대해서는 정도전 『진법』의 구체적인 형태를 검토한 김광수, 김동경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五衛陣法』(오위진법)은 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법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림인 진도(陣圖)가 남아 있어 각 진법의 구체적인 형태를 짐작할 수 있으나 『진도법』과 『계축진설』은 진법의 내용만 『세종실록』에 남아 있고 그 진법의 형태를 그린 진도는 전해지지 않아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어렵다.

한편 진법에 관한 문화예술분야 학술적 접근 유형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고대무용 연구의 과정, 고악보 해석과 진법의 기보법, 풍물굿 진풀이 연구, 무용교육 연구과정, 제반 농악춤사위와 진법연구, 궁중정재와 진법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고대의 진법이 음악, 무용, 타악, 악가무의 형성 과정에서 대형과 방위, 보폭, 동선체계, 춤사위, 기보법을 이루는 요소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접근 유형은 농악의 순차와 진법(최덕원, 1986), 궁중정재와 공통된 진법원리(이미영, 1997), 대만(臺灣) 도고진(跳鼓陣)의 형태와 합의(진벽함, 2012), 춤과 풍물 연희관행과 진법(조경만, 2008), 고악보의 기보법에서 음고, 시가, 선율기보법과 더불어 진법 기보법(김영운, 1987), 풍물굿과 군 진법의 상관성(성윤선·배소심, 2009), 기타 무용교육과 진법 관련 학위논문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5세기 편찬된 『樂學軌範』(악학궤범)에는 다양한 정재무도(呈才舞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원리의 상당 부분은 당시 조선의 진법에 바탕을 두고 있어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중 「定大業」(정대업)에는 곡진(曲陣), 직진(直陣) 등 조선초기 오행 진법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무도(舞圖)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연구에서 그 그림 자체만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당시의 진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²⁾ 따라서 그간의 선행연구는 진법의 원리가 반영된 예술양식의 형성문제를 다루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조선초기 문화원형으로서의 진법의 원리와 형태를 규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계축진설』의 내용 검토를 통해 당시의 전투 양상과 조선초기의 진법의 원리를 규명하고, 원전 속에 텍스트로만 전해져 오는 조선초기 진법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을 찾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당시대 초기진법의 복원을 통해 진법이 지닌 우리의 문화원형콘텐츠로서의 형태와 의미를 확인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서지학적 고증을 통해서 통시적으로 군사사적, 문화사적으로 접근한다. 즉, 1차사료를 토대로 조선초기 진법의 형성과 원리를 규명해 내고, 규명한 진법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복원하여 디자인 함으로써 문화원형콘텐츠로서의 상품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1차사료는 『계축진설』과 『진도법』을 중심으로, 복원의 시각적 디자인은 2D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공간구성과 이미지를 제시한다. 문화콘텐츠로

1) 하차대(198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진법서의 발전. 『군사』, 19; 김광수(1996). 정도전의 『陣法』에 대한 고찰 『육사 논문집』, 50; 광낙현(2009).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35; 김동경(2010). 조선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74; 윤훈표(2011).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군사』, 81.

2) 박광자(2002). 『악학궤범』 소개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배열도 고찰,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선숙(2006). 『樂學軌範』에 수록된 呈才舞圖의 기록양상.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1.

서의 개발가능성은 진법의 방위와 원리 속에 담겨진 구성과 동선의 의미, 그리고 텍스트적 요소를 살펴 보고 활용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전투양상과 진법의 시각적 복원방향에 관한 주제연구는 다양한 장르에서 전통예술형식 성립의 기초가 되어 온 군진법(軍陣法)의 원리규명을 통해 그 문화원형을 규명하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특히 행악(行樂), 악기편제, 전통무용, 제례, 군례, 연례, 풍물, 행렬도, 회화 분야에 투영된 방위와 배치원리, 동선, 색채, 한국적 가치관 등에 대한 인식론적, 군사적 원리와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II. 『계축진설』 편찬의 군사적 배경

14세기 중반 이후의 유동적인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의 공민왕은 원나라 세력의 약세를 틈타 1356년(공민왕 5)부터 반원정책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압록강 유역을 공략하고 원나라에 빼앗겼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회복하는 군사적 조치를 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원나라와의 갈등과 함께 2차례 흥건적의 침공(공민왕 8, 10년)으로 타격을 입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여러 전쟁의 와중에서 고려의 군사적인 양상은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쌍성총관부의 회복 과정에서 유력 가문이었던 고려인 이자춘(이성계의 父) 세력이 공민왕에 적극 협조하였고 동북면 지역의 기존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자춘과 이성계의 동북면 세력이 고려에 편입되었다.

이자춘 가문은 비록 동북면 일대로 이주한 고려인의 후예로 이주 초기 여진족과의 갈등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조부인 이행리가 1300년 쌍성총관부의 千戶에 임명되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이후 이 가문은 몽골 및 주변의 여진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자춘이 1361년(공민왕 10) 46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이성계가 뒤를 이은 이후 이성계 주위에는 다양한 세력과 인물들이 집결하게 된다. 여러 차례의 전투를 통해 북방 세력을 제압하면서 이성계 주변에는 많은 여진족들이 집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와 의형제를 맺은 함경도 일대 최대의 여진 추장이지란과 여진 장수 처명 등이 있었다. 경원의 공주(孔州)를 침입하였던 원나라 장수 조무와 이원경 등도 이성계의 휘하가 되었다.³⁾ 당시 이성계가 거느린 군사력은 기존의 고려 군사력이 아닌 이성계 자신의 가별초와 동북면 일대의 다른 가별초(家別抄) 집단을 통합한 것이었다. 이 집단은 동북면 일대의 유 이민 출신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여진족이 다수를 이루었다.⁴⁾

여진족은 지역적으로 크게 만주 남부의 평야 지대의 강가에 사는 오랑캐와 만주의 서북 및 동북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우디캐 두 종족으로 구분하였다.⁵⁾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오랑캐는 수렵, 목축과 함께 원시적인 농경생활을 하였고 우디캐는 수렵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여진족은 몽골족이나 투르크족 등 일반적인 유목민과 달리 수렵적인 전통이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 지닌 강인함과 능숙한 기마 궁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들의 높은 군사적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⁶⁾ 이러한 종족적 특성에 바탕을 둔 가별초군은 몽골의 지배하에 있던 쌍성총관부 지

3) 김영수(2006), 『진국의 정치-여말선초, 혁명과 문명 전환-』(서울: 이학사), pp.495-501.

4) 유창규(1984),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 『진단학보』 58, p.13.

5) 김구진(2004), 조선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 오랑캐와 우디캐, 『백산학보』 68, pp.294-295.

6) E. 힐딩거(2001), 『초원의 전사들』 채만식(역)(서울: 일조각, 2008), pp.265-266.

역 출신이었으므로 몽골의 유목 전술과 함께 장백산맥을 배경으로 한 산악전의 능력도 갖춘 우수한 군대였다.⁷⁾

이성계 친병인 가별초 집단의 전투 양상에 대해서는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 앞 부분에 매우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전투 사례로는 1380년 진포에 상륙한 왜구 토벌 과정에서 갑옷과 투구로 중무장한 왜구 장수 아기발도를 이지란과 함께 말을 타고서 화살로 투구를 쏘아 벗기고 이어 머리를 쏘아 사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동북면을 침공한 나하추 세력과 대결한 이성계는 나하추 주변의 비장(裨將)을 활로 사살하여 적의 사기를 꺾고 있다. 아울러 적장의 창 공격에 대해서는 마상재로 피하는 모습이 『용비어천가』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성계 집단이 기본적으로 수렵 민족의 군사적 성향과 궁기병의 전형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⁸⁾ 실제 가별초는 여진어의 활(gabe)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성계 군사집단이 가진 여진적인 특성과 기마 궁기병으로서의 모습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나하추와의 전투에서 이성계는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기만과 기습, 그리고 선제 공격 등의 전술을 구사하는 등 몽골과 여진의 기병에게서 보이는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몽골과 여진의 전술과 작전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던 이성계의 군사집단은 당시 고려의 다른 군사집단보다 매우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하여 고려 말의 여러 전투에서 매우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다. 이는 이성계가 고려말 최고의 군사적 실력자로 부각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 조선을 건국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 『태조실록』에는 이성계의 군대에 편입되어 종군한 30여명의 여진족의 대소 추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영역은 두만강 이북의 목단강, 송화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만주의 동부 지역이 모두 이성계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⁹⁾ 그리고 여진의 군사력은 조선 건국 이후 조선 군사력의 주요 기반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조선 건국 직후 이성계 휘하의 친병들은 의흥친군 좌·우위(義興親軍 左·右衛)로 재편되어 조선 중앙군의 핵심 군사력이 되었다.¹⁰⁾ 고려말 이성계의 북방 세력이 고려에 편입되면서 조선 건국 전후한 시기에 기존 고려의 전술체계와 함께 여진 및 몽골의 다양한 전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군사적 양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의 전술체계는 이전에 비해 매우 유연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건국 초 조선 군사력의 주요 원천 중 하나였던 동북 지역 여진의 군사력은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성계가 물러나고 이방원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 상당한 세력이 이탈하게 된다. 특히 태종 2년(1402) 일어난 안변부사 조사의의 난은 결정적인 계기였다. 안변부사 조사의는 태종의 정책에 반발하여 동북면의 익군(翼軍)과 함주의 가별치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동북면의 가별초뿐만 아니라 여진의 오도리족, 오랑캐족 등의 대소 추장들이 대부분 가담하였다. 태종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는데 이후 여진족과의 관계는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대립적인 관계로 바뀌었고 여진족은 조선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고 차례로 명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된다.¹¹⁾ 이에 조선은 두만강 하류의 경원에 설치되었던 여진과의 무역소를 폐쇄하고 이들을 압박하자 생필품 입수가 어

7) 윤은숙(2010),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웃치긴 왕가의 만주 경영과 이성계의 조선 건국』(고양: 소나무), pp.280-281.

8) 김동경(2008),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98-99.

9) 송기중(1994), 조선조 건국을 후원한 세력의 지역적 기반, 『진단학보』 78, pp.108-109.

10) 민현구(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서울: 한국연구원), pp.101-102.

11) 김구진(2010), 조선 시대 여진에 대한 정책, 『백산학보』 88, p.273.

려위진 여진족의 일부는 조선의 변경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1410년 2월 우디거족이 경원을 공격하여 병마사 한홍보가 전사하는 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조선은 3월 원정군을 파견하여 모린위 오랑캐를 정벌하자 건주좌위 세력이 건주본위가 있는 만주 내륙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태종 재위 기간 동안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는 대립과 긴장이 계속되었다. 세종 초기 편찬된 『陣圖法』(진도법)은 태종대 여진의 위협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의 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계승하고 증보한 『계축진설』은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건국 전후의 조선의 군사적 전통과 대외적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려후기부터 진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몽골족의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몽골의 기병 전술이 고려에 소개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후기 이제현(李齊賢)이 진법을 편찬하고 그 진법이 이후 조선초 정도전이나 하륜(河崙)의 진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어 조선초 변계량이 편찬한 것으로 짐작되는 세종 3년 『진도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¹²⁾ 이제현의 진법 편찬 이후 정도전, 하륜, 변계량 등에 의해 진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본 진법으로서 오행(五行)의 원리에 입각한 오행진법(五行陣法)이 확립되었고 군사편제로서 위(衛), 군(軍), 익(翼), 소(所)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오행의 원리란 오행의 상생, 상극의 이치에 따라 좌는 청룡, 우는 백호, 앞은 주작, 뒤는 현무를 의미하는데, 적이 만일 불(火)에 해당되는 예진(銳陣)으로 전진해오면 아군은 물(水)에 해당되는 곡진(曲陣)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오행 진법은 기본 진법으로서 평탄한 지형에서 정규적인 전투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산악 지형과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임기응변에 필요한 여러 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 북방 산악 지역에서 소규모 여진과의 전투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에 따른 진법의 필요성이 컸다. 이에 변계량은 험한 지형, 예를 들어 산과 계곡, 산택(川澤) 등의 지형에 적합한 진법으로서 산택진법(山澤陣法), 조운진법(鳥雲陣法), 곡전법(谷戰法), 수전법(水戰法) 등의 채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계량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임기응변의 전투 방식이나 진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도법』에 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지 않은 것은 이를 반영한다. 『진도법』을 통해 진법의 기본 원리를 정리하고 아울러 여진에 대응하기 필요한 기본적인 전술과 편제의 정리를 시도하였다.

한편 태종 후반기-세종 전반기 여진과의 잦은 전투의 과정에서 여진족의 소규모 산개 전술을 조선은 습득하게 되었다. 당시 여진은 산골짜기에 기거하면서 수시로 모이고 흩어져 조선군을 혼란시켜 지형이 험한 곳으로 유인하고 한밤중에 불의의 기습을 가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¹³⁾ 험한 산악 지형을 이용한 여진의 전술에 대해 조선은 대규모 기병을 동원하여 토벌하였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웠다.¹⁴⁾ 여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은 대규모 전투에 적합한 오행 진법 이외에 새로운 진법의 도입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종 15년 편찬된 『계축진설』에 소개된 이른바 조운진(鳥雲陣)이 바로 그것이다.

12) 변계량, 『春亭集』 「진설문답」.

13)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2월 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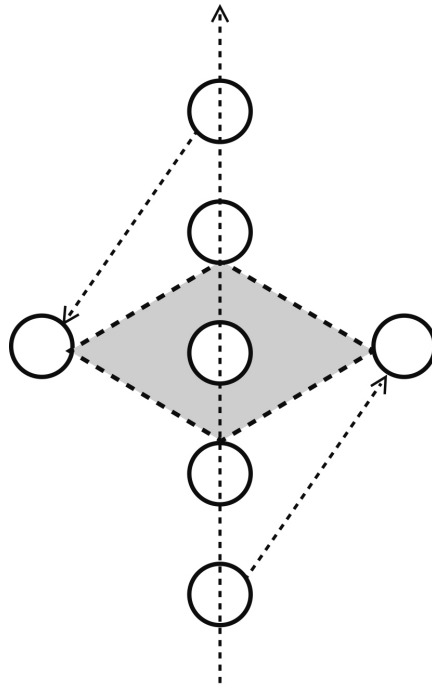
14) 이흥두(2000), 조선초기 야진정벌과 기마전, 『군사』 41, pp.222-223.

III. 『계축진설』에 나타난 전투 방식과 조운진(鳥雲陣)의 시각적 복원

1. 『계축진설』의 체재와 전투 방식

세종초인 1421년(세종 3) 『진도법』이 편찬된 후 조선은 이 병서에 따라 진법 훈련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이듬해인 1422년(세종 4) 11월 병조에 명하여 군사를 모아 진도(陣圖)를 연습하게 하였고 1425년에는 편전 사격을 연습할 때 『陣說』(진설) 즉 『진도법』을 함께 강습하게 하였다.¹⁵⁾ 이것이 전술상에서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433년(세종 15) 7월 초 새로운 진설이 왕명에 따라 편찬되었다. 이것이 바로 『계축진설』 편찬 직후 진도(陣圖)를 붙여 인쇄 반포하여 각도 군사들로 하여금 이를 연습하게 하였다.¹⁶⁾

『계축진설』은 『진도법』의 내용이나 체재를 참고하였지만 그동안의 여진과의 전투 경험을 반영하여 실전에서 전술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고,¹⁷⁾ 진법 훈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많이 보완되었다. 이로 인해 세부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축진설』은 크게 행진(行陣), 결진(結陣)(章服 포함), 교장(教場), 군령(軍令), 응적(應敵)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진도법』의 체재와 거의 유사하지만 결진(結陣) 뒤에 있던 응적(應敵) 편이 가장 뒤로 옮겨지는 변화가 눈에 띈다. 구체적인 각 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그림 1〉 조선초기 행진(行陣)의 오방진 형성원리

15)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1월 丁卯 ;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6월 乙丑.

16)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己巳.

17) 하차대(198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법서의 발전, 『군사』 19, pp.124-130.

18) 이하 내용은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乙卯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함.

행진(行陣)은 5군 군사들의 행군 위치와 요령, 이동시 군사들의 편제 방식, 그리고 행군간 부대 신호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행진할 때에는 가장 앞에 우군(右軍), 다음이 전위(前衛), 다음은 중군(中軍), 그리고 후위(後衛), 맨 뒤에 좌군(左軍)의 순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각 군의 경우 기병이 앞서고 보병이 뒤에 서는데 기병 중에서 일부는 본대와 구분되는 척후대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군사들이 행군 중 험지나 좁은 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고기 두름처럼 한 줄로 나가도록 하였다. 매 대(隊)는 50인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방패 1인, 다음은 창이나 장검을 든 1인, 다음에 화통(火筒)이나 궁수(弓手) 중 1인의 순으로 보졸(步卒) 30인이 앞서고, 이어서 창으로 무장한 기병과 활로 무장한 기병(騎槍, 騎射) 20인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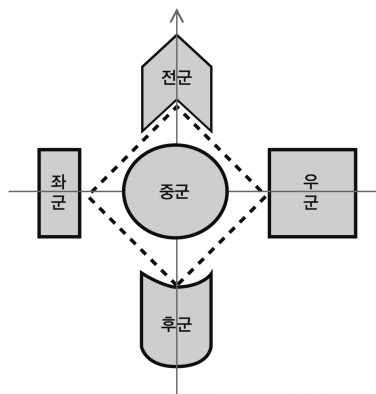
위의 <그림 1>은 고려말 조선초기의 진법으로 계속진설에 서술된 행진(行陣) 중의 오행진을 짜는 방식을 본 연구에서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표현한 것이다.

결진 편은 방진, 예진, 원진, 곡진, 직진 등의 여러 진을 치는 방법과 신호 체계, 그리고 진을 치는 중의 유군(遊軍)의 운용법 등이 서술되어 있다. 아울러 당시 군사들의 편제와 부대 및 개인 간의 거리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진을 편성할 때에는 먼저 중군에서 나팔을 불면 각 군의 예비 병력인 유군(遊軍) 중 기병이 앞으로 나가 사방으로 벌어서고 나서 중군에서 5마(麾)를 모두 점(點)하고 북을 울리면 각 군은 기와 북으로 이에 응한 뒤 각 군별로 진형을 갖추었다. 중군은 원진(圓陣), 좌군은 직진(直陣), 전군은 예진(銳陣), 우군은 방진(方陣), 후군을 곡진(曲陣)을 치고서 신호에 따라 각 군은 모두 다양한 진으로 변화하는 훈련을 한다.

다음의 <그림 2>는 조선초기 진 편성방법과 운용법 훈련형태를 시각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진을 펼칠 때에는 진의 가장 바깥에 보병인 방패수, 다음으로 창수와 장검수, 다음에는 화통과 궁노수를 두고 뒤이어 기병인 기창(騎槍), 기사(騎射)의 순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때 각 병사들 사이의 간격은 횡렬로 5보, 종렬로 4보를 띄우도록 하였으며 각 부대 간에도 부대의 규모 정도로 간격을 두도록 하였다.

군사 편제는 『진도법』과 비슷하게 각 군(軍)에 전·후·중·좌·우의 다섯 소(所)를 두도록 하였다. 하위 편제로는 5인이 1부(伍長), 2부가 소대(小隊)(隊長), 5부가 중대(中隊)(隊正), 50인이 대대(大隊)(隊校)를 편성하는데 대대(大隊)가 행군과 전투의 기본 단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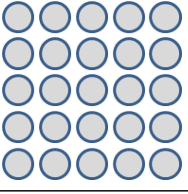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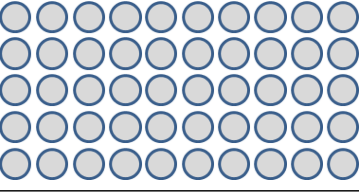


| 편성 | 중군 | 전군 | 좌군 | 우군 | 후군 |
|------|---------------------------------|------------|------------|------------|------------|
| 진법 | 원진 (圓陣) | 예진 (銳陣) | 직진 (直陣) | 방진 (方陣) | 곡진 (曲陣) |
| 신호체계 | 첫신호 : 나각(螺角), 둘째신호 : 기(旗)와 북(鼓) | | | | |

<그림 2> 조선초기 진 편성방법과 운용법 훈련형태 복원도

흥미로운 점은 매 1천명 마다 예비대인 유군(遊軍) 200명을 편성하여 각 군의 후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유군(遊軍)은 적군의 기만, 결원 보충, 척후 등의 임무를 담당하여 지휘관으로 하여금 병력 운용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예비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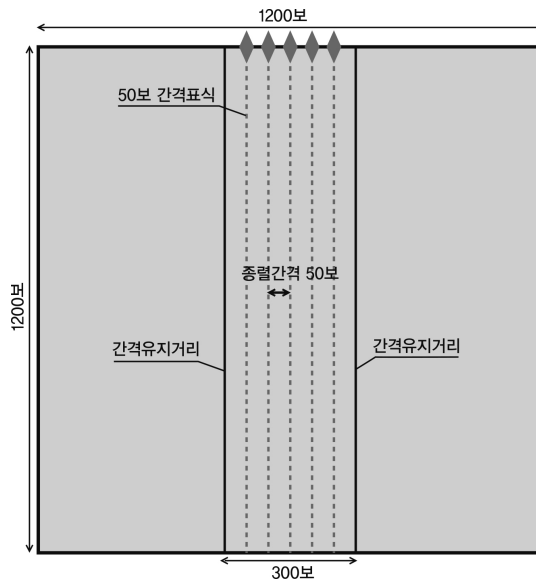
〈그림 3〉은 조선초기 진법운용을 위한 계축진설의 군사편제를 도표화 한 것이다.

| | | | | |
|------|---|---|---|--|
| 편제 |  |  |  |  |
| 편성대오 | 1伍(5명) | 2伍(10명) | 5伍(25명) | 10伍(50명) |
| 명칭규모 | | 소대(小隊) | 중대(中隊) | 대대(大隊) |
| 지휘관 | 오장(伍長) | 대장(隊長) | 대정(隊正) | 대교(隊校) |

〈그림 3〉 조선초기 진법운용을 위한 계축진설의 군사편제

교장(敎場) 편에는 훈련장에 4개의 표(表)를 세워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훈련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훈련장의 규모는 사방 1,200보로 하고 두 쪽으로 나누어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마주보게 하여 중간 거리가 300보 정도 되도록 띄우도록 하였다. 매 50보마다 표(表)를 한 행(行)씩 세워 5행이 되도록 하여 군사들이 훈련 중 전진하고 물러서는데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중군의 신호에 따라 각 군이 교장에서 줄을 기준으로 진퇴(進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그림 4〉는 계축진설에 나타난 오행진 훈련대형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복원도이다.



〈그림 4〉 오행진 훈련대형 복원도

19) 김동경(2009),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4.

군령(軍令)편은 군사들에 대한 신상필벌의 내용을 다룬 부분으로 훈련 및 전투시에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오(伍)나 소대(小隊) 등에서 어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원하지 않은 나머지 군사를 처벌하여 서로 협동하고 구원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대신 적군의 지휘관을 잡을 경우에는 상벌을 상쇄하도록 하였다.

응적(應敵)편은 진을 친 상태에서 적과 전투시 대응 방법이나 상황에 따른 유군의 활용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유군에 의한 정찰과 보고 후 각 방면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중군의 지휘 하에 대응하는 방법, 적이 달아나면 기병의 추격과 보병의 지원 및 이후 진으로 복귀하는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인 전투시에는 대체로 크게 네 종류의 대(隊)로 구성되었는데 기사대(騎射隊)와 기창대(騎槍隊), 화통궁수대(火筒弓手隊), 보창장검대(步槍長劍隊)로 크게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색깔의 기를 소지하였다. 예를 들어 기사대는 청기(靑旗), 기창대는 흑기(黑旗), 화통궁수대는 백기(白旗), 그리고 보창장검대는 적기(赤旗)를 갖도록 하였다. 전투의 모습은 먼저 중군에서 각(角)을 붙고 적마(赤磨)를 일으켰다 눕히면 전위(前衝)이 적군을 맞이하고 흑마(黑磨)가 전방을 가리키고 북이 울리면 좌, 우군이 옆으로 나가 구원하도록 하였다. 사방에서 적군을 맞이하면 각 군이 싸우되 중군이 병력을 나누어 구원하도록 하였다.

2. 조운진의 내용과 형태

응적(應敵)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뒤편에 붙은 조운진(鳥雲陣)에 대한 내용이다. 조운진은 ‘그 형태가 마치 새가 날아 흩어지고 구름이 모이듯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붙여진 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오행진을 친 상태에서 중군에서 대소 나팔(角)을 함께 불면서 북을 울리고 4색의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신호를 하면 각 군에서 유군을 내세워 경계하면서 조운진으로 변하게 된다. 조운진의 구체적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所의 사면에 방패수를 배치한 상태에서 보창장검수(步槍長劍手)가 바깥으로 나와 2열로 포진하여 전열이 된다. 전군(前軍)의 경우는 방패수와 보창장검수 앞에 그 전소(前所)의 기사(騎射)와 중소(中所)의 기사, 전소의 기창(騎槍)과 중소의 기창(騎槍), 전소의 화통궁수(火筒弓手)와 중소의 화통궁수가 횡렬로 늘어서 적과 마주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맨 앞줄은 중소의 기사(騎射)가 중앙에 늘어서고 좌우에 전소의 기사가 나뉘어서 넓게 서게 된다. 이어서 전소의 기창 - 중소의 기창 - 전소의 화통궁수 - 중소의 화통궁수의 순으로 서서 앞이 벌어진 곡식을 까부는 키(箕)와 같은 형상을 띠게 된다. 이를 통해 화통과 궁수의 지원 하에 기사(騎射)와 기창(騎槍)을 주력으로 하는 진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운진은 그 이전의 『진도법』에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으로 기사와 기창을 주력으로 하는 매우 기동성이 높고 융통성있는 전술 체계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여진의 군사 편성 및 전술과 상당히 높은 친연성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조선 초기 여진족의 편성과 전술을 잘 보여준다.

당초에 女眞은 步卒이 없고 1천여 명의 騎兵만이 있었다. 작은 木牌를 새겨 사람과 말에 달아 표지를 삼고서 50명을 1隊로 만들었는데, 앞장서는 20명은 견고한 갑옷(重甲)에 矛戈를 잡고

뒤에 배치한 30명에게는 가벼운 갑옷에 弓矢를 잡게 하였다. 적과 접촉할 때마다 반드시 2명씩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적진의 허실을 관찰하고 나서 사면으로 대오를 편성하여 쳐들어가 공격하되, 1백 보 밖에서는 일제히 활을 쏘게 하니 모두 명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병력의) 분산과 집합, 出擊과 退入의 행동에 있어 임기응변에 능하고 병사들 각자 능력대로 싸우게 하였으므로 항상 승리를 거두었다.²⁰⁾

이 자료를 통해 여진족의 전술은 1천 내외의 병력을 50명을 기본 단위로 편성하되 전원이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과(矛戈)를 이용한 중기병의 충격력과 궁시(弓矢)를 갖춘 경기병의 공격을 함께 중시하고 각 병사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진족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실록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져 일정한 향오를 이루지 않는다(鳥散雲行 不成行伍)’고 하여 병력의 분산과 집합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부대 단위로 함께 이동하는 조선군에 강시(強弓)으로 집중 사격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음을 알 수 있다.²¹⁾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전술도 이러한 여진의 전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陣圖法』(진도법)과 『癸丑陣說』(계축진설)에서 50명을 기본 전투 단위로 편성하고 다수의 유군(遊軍)을 두어 임기 응변에 대처하도록 한 점, 그리고 많은 기병을 편성한 것은 기병 중심의 여진족 전법을 의식한 것이었다. 조선은 기병 중심의 전술에 더하여 방패, 창수(槍手), 장검수(長劍手), 화통수(火桶手), 궁수(弓手) 등으로 구성된 보졸(步卒)을 아울러 편성하여 다양한 지형과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궁시(弓矢)와 화약 무기 등 조선의 장기인 장거리 무기(長兵)를 아울러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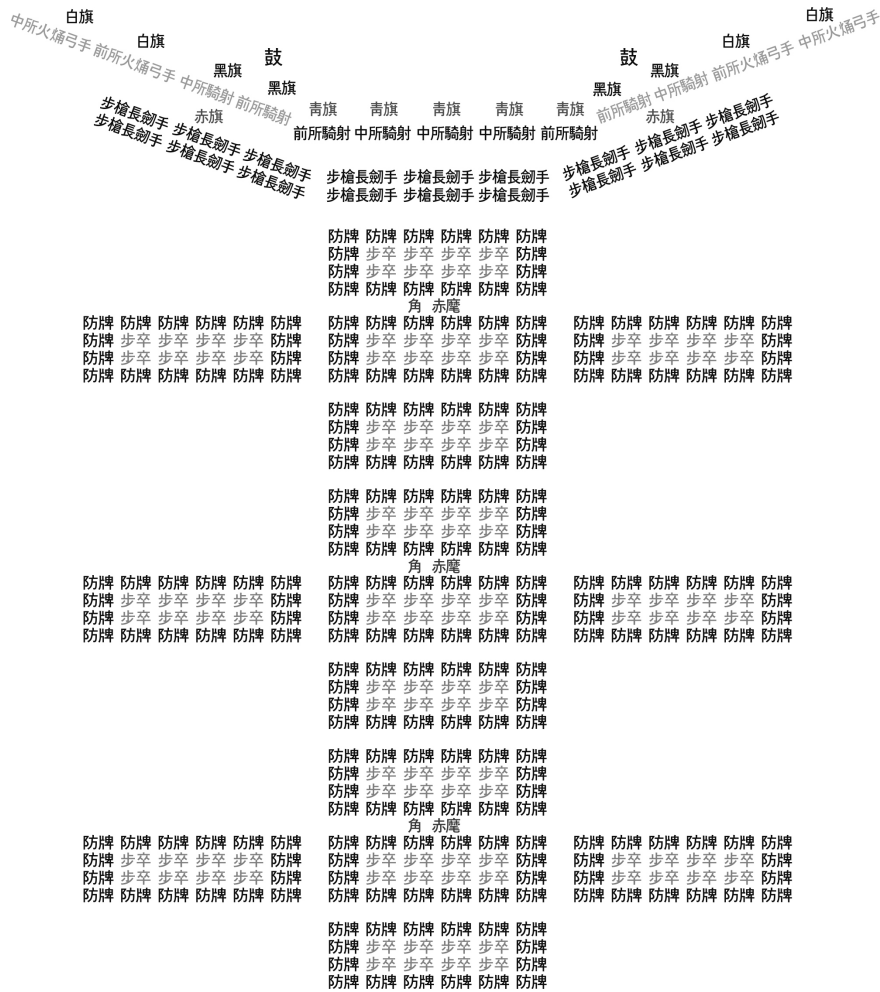
아울러 여진족의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져 일정한 향오를 이루지 않는’ 진형을 참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전술에 도입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게 되는데 『계축진설』의 조운진(鳥雲陣)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5>는 오행진 행군 중 전투를 대응하는 조운진 편대를 시각적으로 복원한 그림이다.

함길도의 산악지대에서 대오를 이루지 않고 산발적으로 공격하는 여진에 대한 조선군의 전술을 보여주는 다음의 자료는 『계축진설』에 나타난 조운진이 함길도 산악 지역 여진과의 전투를 위해 고안되었고 널리 전술의 하나로서 채택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20) 『兵將說』 「諭將編」.

21)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癸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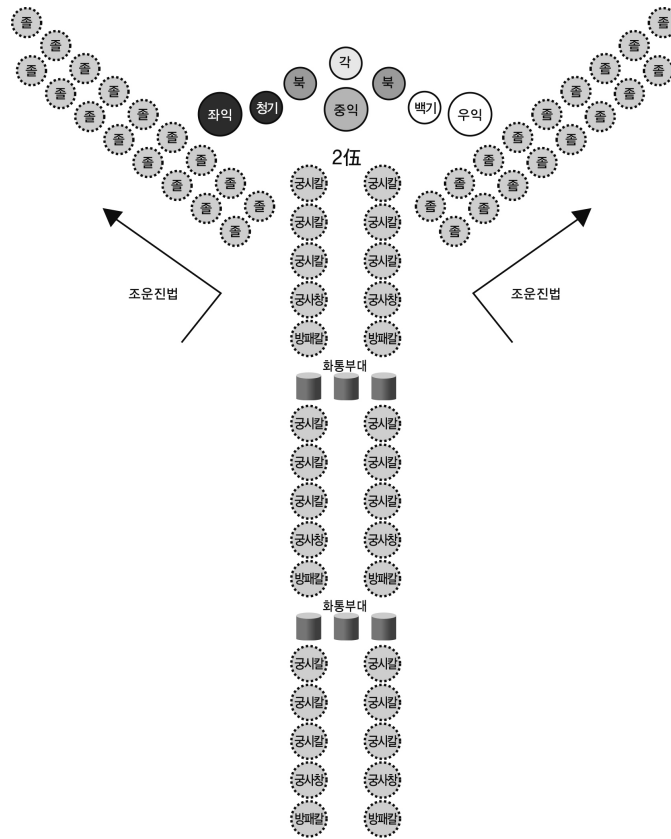


〈그림 5〉 조선초기 전투 중의 조운진 편대 복원도

조운진은 산천이 험하고 좁아서 열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쓰는 것이므로 그 향오를 성기게 하여 흠어져서 적을 막게 되어 사람들이 각자 싸우되 거의 향오를 잃지 아니하고 (중략) 결진과 행진은 모두 『(계축)陣說』에 의하고 적을 만났을 때에는 中翼이 나팔[角]을 한번 불고 청, 백의 두 깃발[鷹]이 앞을 가리키고 북을 울리면 좌·우익이 옆으로 나와 그 대오를 성기게 하여 구름이 피어오르고 새가 흠어지듯이 하고 서기를 기러기가 가는 듯이 하여 좌우로 벌리어 형세가 포위하는 것 같이 한다. 다섯 사람이 行伍가 되어 한 사람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차며, 한 사람은 궁시를 차고 창을 가지며, 세 사람은 궁시를 차고 칼을 가지는데 만일 걸으면서 전투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네 사람의 말을 지키는데 (중략) 3隊마다의 사이에 화통 부대를 두되 역시 다섯 사람으로 향오를 만들어서 방패를 가진 사람은 칼을 차고 화통을 가진 네 사람은 칼을 차며 말을 지키는 사람은 위와 같이 합니다 (중략) 북이 급이 울리면 방패를 가진 사람이 리 달려 앞으로 나아가고 뒤의 세 사람도 빨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을 지키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만 세 사람이 활과 창을 번갈아 쓰면 (적군이) 나무와 돌에 의지하여 굳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이 패하여 달아나면 좌우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서 급히 치되 적이 만일 말을 타고 달아나거든 우리도 말을 타고 쫓으며 ---22)

위 인용문은 다소 긴 인용이지만 조운진의 실제 전투 양상을 잘 그리고 있다.

〈그림 6〉 조선초기 산악지형 균형렬 대형 및 조운진 배치모습을 각대의 규모를 소대편제(2伍, 10명) 기준을 잡아 시각적으로 복원한 조운진 대형이다.



〈그림 6〉 조선초기 산악지형 균형렬 대형 및 조운진 배치모습 복원(각대 소대편제(2伍) 기준)

여진족이 기병만으로 편성하고 기마(騎馬) 전투만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조선은 조운진을 운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기병이 하마(下馬)하여 보병과 같이 전투하되 방패로 군사를 보호한 상태에서 원거리에서는 화통과 궁시로 대응하다가 근거리로 접근하면 단병기로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적이 달아나면 말을 타고 추격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운진은 산악 지형에서 기병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마 전투만이 아닌 조선이 가진 총통과 궁시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제압하고 퇴각 시에는 기병으로 추격하여 기병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방패를 통해 보호를 받으면서 근접전을 회피하고 원거리 궁시 사격 위주의 전술을 강요하는 여진의 전술을 이용한 조선의 전술 체계로서 조운진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축진설』의 조운진은 여진족의 산개 전술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장기인 총통, 화포 등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 체계로 개발된 것이다.

22)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丙辰

IV. 조선초기 진법의 문화원형과 활용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법은 전술이다. 전투시 편성과 위치, 방위, 간격, 동선을 갖춘 전술이다. 진법은 다양한 신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선초기 진법의 원형인 조운진법은 『계축진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행진(行陣), 결진(結陣)(章服 포함), 교장(教場), 군령(軍令), 응적(應敵)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운진의 내용과 형태 또한 그 형태가 마치 새가 날아 흩어지고 구름이 모이듯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오행진을 친 상태에서 형태를 이룬다. 즉, 중군 중에 대소 나팔[角]을 함께 불면서 북을 울리고 4색의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신호를 하면 각 군에서 유군을 내세워 경계하면서 조운진 형태로 변화된 대형을 이루었다.

이처럼 조선초기 진법의 원형은 신호체계에 있어 오행진을 친 상태에서 나팔과 나각, 북, 4색 깃발을 사용한다. 신호에 따른 동작은 마치 새가 날아 흩어지는 형상이며 구름이 모여드는 변화무쌍함의 대형을 묘사한다. 청각적 요소로 나각과 북, 색채적 요소로 방위를 표시하는 4색깃발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형과 편성, 보폭과 대열을 이루는 방식 또한 새의 흩어짐과 구름의 운동을 묘사하는 바 취산의 원리(聚散之原理) 같이 무용동작의 몸짓과 동선그리고 악곡의 산조를 형상화하는데 조선초기 원형의 모습을 구축하는데 구성요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전통적인 악가무의 형성배경과 발달과정에 알 수 있듯이 진법은 음악적으로는 악대편성과 편성악기의 방위(동, 서, 남, 북, 중앙)와 배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율, 음고, 시가의 기보와 더불어 진법자체의 기보법으로도 발달해 왔다.²³⁾ 무용의 측면에서는 진법은 배치와 간격, 동선체계 및 동선운동에 반영되었다.²⁴⁾ 궁중정재와 민속무용에도 적용되어 춤의 형식화에 기여하였다.²⁵⁾

특히 『악학궤범』 권2의 「定大業」(정대업)에는 당시 오행 진법의 형태가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다. 당나라 칠덕무(七德舞)를 모방하여 만든 정대업은 궁시와 창검으로 찌르는 형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배열도 전투시 군사 배열인 오행 진법인 방진, 곡진, 직진, 예진, 원진의 다섯 진도(陣圖)와 처음 들어와 배열하는 초입배열도(初入排列圖) 등 여섯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초입배열도에 의하면 71명의 여기(女妓) 71인이 오색단(五色段) 갑옷과 청단(靑段) 투구를 6명씩 각종 병장기를 갖추고 오행 진법을 하기 위해 배열된 것을 보여준다.²⁷⁾ 우선 좌우의 의장을 십일자로 배열하고 황룡대기(黃龍大旗)를 중심으로 우측에 현무기와 백호기, 좌측에 청룡기와 주작기를 배열하고 이 앞에 사방 6인씩 6열로 36인이 방진을 이루고 있다. 앞의 두 줄 16명은 검(劍)을 들고 중간의 두 줄은 창(槍), 그리고 뒤의 두 줄은 궁시(弓矢)를 들고 있다.

23) 김영운(1987), 한국의 고악보 현황, 『문화예술지』 110, pp.92-115.

24) 조경만(2008), 사회적 존재와 사회관계 표현으로서의 몸·춤·풍물, 『무용기록학회지』 15, pp.175-214.

진벽함(2012), 대만(臺灣) 도고진(跳鼓陣)의 형태와 함의, 『한국무용사학』 13, pp.109-155.

25) 이미영(1997), 우리나라 宮中呈才의 公演形式에 맞는 舞臺에 관한 研究, 『청예논총』 11, pp.119-138.

26) 박광자(2002), pp.38-41.

27) 정대업 무도의 시각적인 복원은 2000년대 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 복원사업을 통해 최초 시도되었다. 그 결과는 현재 문화컨텐츠닷컴의 「디지털 악학궤범」에 공개되어 있다(<http://www.culturecontent.com>). 그러나 이는 정재 무도를 단순 시각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7〉 『악학궤범』 권1 소재 올려격팔상생음 기도설²⁸⁾



〈그림 8〉 『악학궤범』 권5 소재 "정대업"의 방진도²⁹⁾

이는 『계축진설』에서 「結陣」(결진) 조의 군사를 배치하는 모습과 기병이 빠진 것 이외에는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의 정재의 경우 당시 군대의 진법과 연관성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7〉은 진법의 철학적, 인식론적 관계도이며 〈그림 8〉은 악학궤범에 제시된 정대업의 진법도이다.

이처럼 조선초기 진법의 규명과 원리의 발견은 문화원형의 복원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우리문화의 생활양식과 전통예술 형식에 녹아든 원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이에 기초하여 현재 적용되어 있고 원리화 되어 있는 무용과 풍물극의 형성과 음악적 악기의 배치가 조선초기 진법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한다. 문화원형으로서 조선초기 진법의 발견과 원리해석, 진법의 예술적 양식화에 대한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무용교육에 있어 진법의 원리는 교육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풍물극의 연희관행에도 녹아들어 운영과 순차, 동선배치에 진법이 적용되었다.³⁰⁾ 오방진의 오색이 방위와 신호를 지휘하며 각(角)을 불고 적마(赤磨)를 일으켰다 높히고 흑마(黑磨)가 전방을 가리켜 북이 울리면 좌, 우를 관장하였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법의 원리나 원형에 대한 검토, 혹은 당시의 군사적인 상황과의 연계 등은 아직 불충분한 상황이다.

한편, 진법을 리소스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은 시각, 청각, 놀이, 체험, 행렬, 게임, 교육, 전투, 공연, 민속놀이, 전시 등의 분야에서 재연과 미적, 체험적 가공의 요소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시각적 영역에서는 조운진법에 활용된 시각적 신호체계의 구성과 활용의 방식으로 그리고 배치도의 2D, 3D이미지 구축 및 디오라마를 제작하여 전쟁사를 다루는 박물관 전시콘텐츠 개발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각적 측면에서는 조운진법의 운행과정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구성과 신호의 재현을 통해 행렬행진에 적용해 볼 수 있다.

28) 송방송(2010),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서.

29) 송방송(2010),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서.

30) 최덕원(1986), 南道の 農樂놀이 小考, 『순천대학교 논문집』 5, pp.181-194.

성윤선·배소심(2009), 풍물극과 군 진법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7, pp.79-115.

놀이의 측면에서는 조운진 진법놀이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체험형 콘텐츠개발면에서는 조선 초기 조운진 전투장면 재연에서 초기전투의 행렬체험을 구성해 볼 수 있다. 행렬구성의 측면에서는 장대한 조선의 군대를 구성하여 조운진 전투대형과 전투행렬을 복원하여 퍼레이드와 궁궐과 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전투행렬도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초기 전투행렬도를 원형재연을 통해 구성하여 선보이는 행사도 흥미있을 것이다.

게임콘텐츠 개발제작과정에서도 전투장면의 연출에 반영할 수 있고 전투씬을 그래픽 하는데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용과 풍물극의 구성과 안무에도 반영하여 재연해 보는 것도 조선초기 무용과 풍물극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창작무용에서 가칭 「창작무 조운진」과 풍물판극에서 「진풀이 조운진」을 구성하여 선보일 만하다. 더불어 시청각과 복색, 대형, 방위, 신호악기, 깃발, 동선체계를 갖춘 민속놀이를 복원하여 재연장면을 연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초기 진법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양식 속에 내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초기 진법의 규명과 원형의 발견은 문화원형 복원의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원형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의 측면에서 유용한 소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위용과 면모, 자긍심을 제공해 주는 역사적, 문화적 소재로도 유용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에서 조선초기 진법의 원리와 원형 복원의 방향을 『계축진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계축진설』 등 조선초기의 진법은 기본 진법인 오행진법의 경우에는 고려말부터 오행사상 및 당시 진법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조운진(鳥雲陣)과 같은 진법은 여진과의 전투를 통해 개량되고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조선의 진법 연구는 계속되어 세종대 직후 편찬된 『진법』에는 오행진법과 조운진 이외에도 병세의 규모나 지형에 따라 장사진(長蛇陣), 학익진(鶴翼陣), 어린진(魚鱗陣), 언월진(偃月陣) 등 다양한 진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³¹⁾ 조선초기 진법의 원리와 내용은 군사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궁중의 무용에도 많이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풍물극등 민속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연구결과 우리문화의 원형 속에 내재된 진법의 원리가 세종시대에 형성되고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학궤범』의 정재의 경우 『계축진설』에서 「結陣」(결진) 조의 군사를 배치하는 모습과 기병이 빠진 것 이외에는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문화의 원형이 당시 조선초기 군대의 진법과 연관성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제례 및 연례, 의례에 있어 진법이 주요한 배치와 편성, 구성과 동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선초기 진법의 원리규명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전통적인 악가무의 형성배경과 발달과정에서 진법은 음악적으로는 악대편성과 편성악기의 방위(동, 서, 남, 북, 중앙)와 배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율, 음고, 시가의 기보와 더불어 진법자체의 기

31) 『陣法』 「結陣式」 五衛連陣.

보법으로도 발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궁중정재와 민속무용에도 적용되어 춤의 형식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법의 원형이 조선초기 진법서인 『계축진설』에 의거하고 있음을 원천사료의 고증과 시각적 복원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처럼 원천사료의 고증을 통해 본문에서 제시된 조운진법의 시각적 복원 내용은 우리 문화원형의 원리와 형태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조선초기 진법은 하나의 리소스로써 문화원형콘텐츠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주요한 고증자료이다. 시청각적 측면과 각종 재연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전통소재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콘텐츠의 시각적 구성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나아가 창작무용과 창작판극을 구성할 때 가칭 「창작무 조운진」과 「진풀이 조운진」을 시도해 볼 만한 창작소재로서도 유용하다.

연구성과는 무용, 음악 등 전통공연예술 양식에 대한 학술적 문화원형 고증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공연예술 및 교육적 측면에서 연행과정과 연출기법, 예술교육의 원리해석에 유용한 재료를 제공할 것이다. 응용면에서는 조선후기 고착화된 장르예술의 동선과 방위, 구성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케 하여 문화콘텐츠 개발의 원소로서 문화원형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리라고 평가된다. 특히 시각적 복원 성과는 문화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복원 및 재연행사의 원형적 가치를 높여주고, 전통문화콘텐츠의 구성미와 규모성 그리고 시각요소와 연출미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는 군사사적으로 진법의 원리를 규명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문화사적으로도 행악(行樂), 악기편제, 전통무용, 제례, 군례, 연례, 풍물, 행렬도, 회화 분야에 투영된 진법에 대한 인식론적, 형태론적 원리를 규명한 성과물로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고증된 조선초기 진법의 원리가 각 전통공연예술 양식의 성립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변형되어 왔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진법의 원형이 장르별로, 양식별로 어떻게 반영되고 변형되었는지 구체적 검증을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김영수(2006), 『건국의 정치 -여말선초, 혁명과 문명 전환-』. 서울: 이학사.
- 민현구(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서울: 한국연구원.
- 송방송(2010),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서.
- 윤은숙(2010),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웃치긴 왕가의 만주 경영과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고양: 소나무.
- 힐딩거, E.(2001), 『초원의 전사들』. 채만식(역). 2008. 서울: 일조각.
『兵將說』 「諭將編」 5.
- 변계량, 『春亭集』 「진설문답」.
『陣法』 「結陣式」 五衛連陣.
-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2월 己未.
-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1월 丁卯.
-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6월 乙丑.
-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2월 庚午.
-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己巳.
-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癸酉.
-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丙辰.
- 김동경(2008), 조선초기 진법의 발전과 군사기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광자(2002), 『악학궤범』 소재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배열도 고찰.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곽낙현(2009),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35.
- 김광수(1996), 정도전의 『陣法』에 대한 고찰. 『육사논문집』, 50.
- 김구진(2010), 조선 시대 여진에 대한 정책. 『백산학보』, 88.
- 김구진(2004), 조선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 오랑캐와 우디개. 『백산학보』, 68: 294-295.
- 김동경(2010), 조선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74.
- 김영운(1987), 한국의 고악보 현황. 『문화예술지』, 110: 92-115.
- 성윤선·배소심(2009), 풍물굿과 군 진법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7: 79-115.
- 손선숙(2006), 『樂學軌範』에 수록된 多才舞圖의 기록양상.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1.
- 송기중(1994), 조선조 건국을 후원한 세력의 지역적 기반. 『진단학보』, 78: 108-109.
- 유창규(1984),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 『진단학보』, 58: 13.
- 윤훈표(2011),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군사』, 81.
- 이미영(1997), 우리나라 宮中呈才의 公演形式에 맞는 舞臺에 관한 研究. 『청예논총』, 11.
- 이흥두(2000), 조선초기 야진정벌과 기마전. 『군사』, 41: 222-223.
- 조경만(2008), 사회적 존재와 사회관계 표현으로서의 몸·춤·풍물. 『무용기록학회지』, 15: 175-214.
- 진벽함(2012), 대만(臺灣) 도고진(跳鼓陣)의 형태와 함의. 『한국무용사학』, 13: 109-155.
- 최덕원(1986), 南道の 農樂놀이 小考. 『순천대학교 논문집』, 5: 181-194.

하차대(198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법서의 발전. 『군사』, 19: 124-130.

논문투고일 2014. 06. 14

심사일 2014. 06. 21

심사완료일 2014. 07. 01

www.kci.go.kr

The Study of the Early Joseon Era's Battle Formation for the Restoration of Cultural Archetype Based upon 「Bird Cloud Battle Formation」

Kwon Byung Woong* · Roh Young Koo**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Art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of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This research examines the way of restoring cultural original forms and principles of battle formation of early Joseon dynasty with the center as Bird Cloud battle formation(鳥雲陣) on GyeChukJinSul(癸丑陣說). There are many battle formations after King Sejong period other than Five Battle Formation and Bird Cloud battle formation regarding powers of armies or geography such as Jang-sa-jin(Snake formation, 長蛇陣), Hak-ik-jin(crane wing formation, 鶴翼陣), Eo-rin-jin(papelonne formation, 魚鱗陣), Eon-worl-jin(half moon formation, 偃月陣).

The principle of battle formation can also be principle of Korean cultural formation other than in military way. Investigating principles of military battle formation in Early Joseon Dynasty, as cultural history way, there is original cultural form of epistemology and morphology founded through parade music, orchestration, traditional dance,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military ritual formalities, annual events, institutions and customs, and parade. The restored visual reflection of Bird Cloud battle formation above is regarded as Korean cultural principles and forms.

Keywords: Bird Cloud battle formation(조운진), Five Battle Formation(오행진법), Battle formation(진법), Original cultural form(문화원형), Dance formation(무용진법)